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교육 〈손안의 통일〉 시리즈 출간!

「손안의 통일」(전5권)



1권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지음

2권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인디고 서원 지음

3권 북한에서 사업하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임을출 지음

4권 혐오 시대 헤쳐가기

김태형 지음

5권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

정은찬 엮음

<평화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통일 교육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과거 남북 대결에 바탕을 둔 <통일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통일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열린책들 출판사가 함께 기획·제작한 <손안의 통일> 시리즈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맞춤형 통일 교육서이다. 기존의 주입식 통일 교육을 지양하고, 통일과 평화 문제를 독자 스스로 숙고하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을 둬으로써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통일 교육>을 제시한다. 통일을 지상 명제로 삼고 독자들을 잡아끄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 스스로가 평화는 왜 필요한지, 평화와 통일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더 나은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힘을 길러 준다. 곧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손안의 통일>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기획되었다. 다양한 독자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필자 구성과 소재 면에서도 기존 통일 교육서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준다. 일반 시민과 대학생, 중고등학생, 탈북 청소년, 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작되었고,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2권 『우리의 소원은 평화』), 북한 혐오(4권 『혐오 시대 헤쳐가기』),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5권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주제와 계층을 아우른다. 특히 1권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와 3권 『북한에서 사업하기』는 각각 평화·통일 속의 토론 교육을 진행하는 실무자와 대북 사업 구상 중인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웠다. 인문학과 에세이, 청소년 토론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고, 각 주제에 어울리는 삽화를 넣음으로써 대중성을 더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간행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통일 교육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평화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한반도의 평화의 물결이 고조되는 시점에도 북한에 대한 막연한 혐오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이 시리즈가 많은 시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평화의 의미를 느끼고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평화의 시대가 무르익은 다음에는 통일까지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을지 모른다.

시리즈 각권 소개



1권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지은이: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분 야: 인문/사회

형 태: 252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19년 12월 25일

ISBN : 978-89-329-1997-3 04300 978-89-329-1996-6(세트)



2권 우리의 소원은 평화

지은이: 인디고 서원

분 야: 인문/사회

형 태: 17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19년 12월 25일

ISBN : 978-89-329-1998-0 04300 978-89-329-1996-6(세트)



3권 북한에서 사업하기

지은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임을출

분 야: 인문/사회

형 태: 20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19년 12월 25일

ISBN : 978-89-329-1999-7 04300 978-89-329-1996-6(세트)



4권 혐오 시대 헤쳐가기

지은이: 김태형

분 야: 인문/사회

형 태: 198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19년 12월 25일

ISBN : 978-89-329-2000-9 04300 978-89-329-1996-6(세트)



5권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

지은이: 정은찬

분 야: 인문/사회

형 태: 18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19년 12월 25일

ISBN : 978-89-329-2001-6 04300 978-89-329-1996-6(세트)

1권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

통일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을 풀기 위한 실천적 입문서. 전국의 보수, 중도, 진보 사회단체와 7대 종단이 함께 만든 사회적 대화 기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가 집필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이어 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제공되었던 토론 의제들을 집약하고 보완한 결과물이다. <통일 비용과 통일 이익>, <평화·통일로 기대되는 효과> 등 남북 관계와 관련된 13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에 관해 보수와 진보 측 주장과 논리를 균형 있게 정리해 놓았다.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가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책 후반부 부록에는 속의 토론 운영 매뉴얼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속의 토론을 진행하는 실무자는 물론 시민들이 교실과 직장, 마을 단위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차례

추천사 1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추천사 2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서문 1 임현조(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서문 2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의제 개발에 도움을 주신 분들

1부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의 미래상

의제 01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의제 02 북한을 보는 시각
의제 03 통일 교육의 강조점
의제 04 통일 비용과 통일 이익
의제 05 평화·통일로 기대되는 효과

2부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의 길

의제 06 평화 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
의제 07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관계
의제 08 평화·통일에 필요한 역량

3부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

의제 09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의제 10 남북 경제 협력(개성 공단 재개 포함)
의제 11 남북 교류 협력의 원칙과 주체는?

4부 평화 통일과 민주주의

의제 12 정치 지도자와 시민
의제 13 평화·통일과 인권

부록 <평화 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속의 토론> 매뉴얼

추천의 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평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보수와 진보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의제화했다. 교실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펼쳐질 수 있도록 속의·토론 운영 매뉴얼도 후반부에 실었다.

- 임현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 책은 전국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이어 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제공되었던 토론 의제들을 집약하고 보완한 결과물이다. 단언하건대 이 책은 정파를 초월하여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가 어디서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을, 또한 다른 심각한 사회적 갈등들을 풀기 위한 실천적 입문서이다.

-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진영 논리로 인한 남남 갈등입니다. <통일비전 사회적 대화>가 단절된 진영 간의 불통을 해소해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기대합니다.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지은이_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 전국의 보수, 중도, 진보 사회단체와 7대 종단이 함께 만든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속의의 장을 마련해 남북 관계 현안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30일에 발족했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와 발언,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정파와 이념, 세대와 성별, 직업과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타개할 지혜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 국회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속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통일국민협약(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려고 준비 중이다.

2권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인디고 서원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통일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청소년들은 통일을 그저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흡수되거나 합쳐지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남북한이 서로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학생으로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없는 과중한 학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미 학교에서부터 경쟁 논리를 습득하는 구조 속에서는 통일이 되어도 북한 주민들과 관

계를 맺고 공존하는 일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청소년들은 거꾸로 우리 사회를 향해 되묻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도 괜찮은 나라인가?> 인디고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우리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은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묶인 문제이고, 전반적인 사회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해서 통일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적에 따라 차별하고, 점수로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통일 정치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치가, 통일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가, 통일 문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공생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차례

<손안의 통일>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 통일의 패러독스를 넘어

1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들어가는 말 | 평화를 찾아 떠나는 가슴 벅찬 여정
청소년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
이대로 통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꼭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이 되려면 정의로운 시민이 있어야 한다
삶이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부록 |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요?

2부 청소년, 통일 교육을 말하다
들어가는 말 | 평화와 공생을 위한 통일 교육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통일 교육의 현주소
북한 청소년들을 만나 보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이익과 눈앞의 고통
문제도, 해결 방법도 우리 안에 있다
부록 |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부 사람답게 사는 길, 통일
들어가는 말 | 작고 위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진정한 이웃이 되는 법
우리 안의 타인
남북한을 넘어 지구 공동체의 시민이 되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위한 도약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

부록 | 평화 통일 선언을 합시다!

함께 읽은 책

지은이_인디고 서원

2004년 문을 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내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좋은 책들이 빼곡한 인디고 서원에는 함께 책을 읽으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디고 아이들이 있다. 인디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도덕적 품성, 비판적 지성,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의 윤리적 가치를 찾고자 오늘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쓸모 있는 실천으로서의 인문 공부,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고 변화를 창조하는 인디고 아이들의 평화와 공생의 책 읽기이다.

3권 북한에서 사업하기

대북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 5·24 조치 이전 해인 2009년 기준으로 남북 교역액은 17억 달러로 우리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었다. 교역·경협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1천여 곳이 넘을 정도로 2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북한 경협 사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거래 및 투자 환경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개인 등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말만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일부 기업은 손해를 보고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이 책은 향후 남북 교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북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북한 투자와 관련된 북한 경제의 특징 및 산업 인프라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을 다루고 있으며, 남북 교류 협력 관련 법제도 또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남북 교역 실무 절차 및 추진 사례 등의 내용도 정리해 실었다. 사업 계획 구상부터 협의, 계약, 통관 등 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대북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추천의 말
머리말

1장 북한의 경제 현황

- 1 북한 경제의 특징
- 2 북한의 경제 정책
- 3 북한의 대외 무역 현황 및 무역 정책
- 4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및 개발 상황

2장 남북 경협 추진 환경

- 1 남북 경협 추진 현황

- 2 북한 주요 인프라 현황
- 3 북한 기업의 변화
- 4 노동 정책
- 5 금융 제도
- 6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현황과 남북 경험

3장 남북 교역 실무 절차

- 1 남북 교역 개요
- 2 남북 교역 실무 절차
- 3 지원 제도

4장 추진 사례

- 1 M기업 사례
- 2 K기업 사례
- 3 S기업 사례
- 4 D기업 사례
- 5 Y기업 사례
- 6 T기업 사례

부록

추천의 말

이 책은 북한 투자와 관련된 북한 경제의 특징 및 산업 인프라 등 북한의 투자 환경을 다루고 있으며, 남북 교류 협력 관련 법제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역 실무 절차 및 추진 사례 등의 내용도 정리해 사업 계획 구상부터 협의, 계약, 통관 등 경험 사업 추진 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본 안내서를 통해 남북 교류, 특히 경제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남북 교역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 책이 남북 교역의 추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기원합니다.

-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남북 경험 사업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기업가 정신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남북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북 경험 사업이 성공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환히 비춰지길 기대합니다.

- 배국환, 현대아산(주) 대표

지은이_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07년 5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 당국 간 이행 기구로 출범한 통일부 산하의 남북 교류협력 지원 전문 기구. 남북 교역·경험 관리 업무, 대북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운영, 남북 군사 당국 간 통신 체계 개선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사·연구와 정부 위탁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자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 센터장.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회담 정책자문위원,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자문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TF 팀원으로 참여했다. 코트라에서 남북경협 및 북한 경제 애널리스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4권 혐오 시대 헤쳐가기

심리학자 김태형이 우리 사회의 혐오 현상과 북한 혐오의 본질을 분석한 책.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혐오, 곧 특정 집단을 향한 <사회적 혐오>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1990년대를 주목한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도입되고 <돈 중심의 사고>가 만연하면서 우리 사회의 관계 파탄과 공동체가 붕괴가 본격화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늘날 이주민, 탈북자, 소수자 등을 향한 혐오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비롯한다고 진단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대접을 받는 한국 사회에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처지에 내몰린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월주의에 쉽게 빠지고, 계층의 하락을 경감한 사람일수록 혐오의 대열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 예다.

저자는 1990년대 전후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 <증오>에서 <혐오>로 변화된 것에 주목한다. 보통 혐오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감정>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서 증오했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시점부터는 북한을 약자로 여기고 혐오하게 되었다는 진단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북한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월적인 시각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 볼 것을 주문한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들어가는 말

1장 혐오란 무엇인가: 심리학의 관점에서

- 1 혐오는 감정이다
- 2 혐오의 기원: 생물학적 혐오 혹은 원초적 혐오
- 3 사회적 감정으로서의 혐오
- 4 혐오는 약한 대상에 대한 감정
- 5 잠재적인 위험과 전염 공포
- 6 혐오에 관한 서구 이론의 문제점

2장 혐오는 왜 위험한가

- 1 합리적 사고 방해
- 2 공존 거부
- 3 혐오 대상에 대한 공격

3장 혐오의 원인

- 1 혐오의 심리적 원인
- 2 혐오의 사회적 요인

4장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

5장 북한에 대한 혐오

- 1 증오에서 혐오로
- 2 북한 혐오의 문제점

6장 혐오를 넘어 평화로

- 1 혐오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 2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
- 3 북한 혐오를 유발하는 객관적 조건과 해법
- 4 혐오를 넘어 평화로: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주

참고문헌

추천의 말

혐오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한반도는 혐오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남북으로 갈리고, 전쟁을 겪었다. 적으로 만나 죽이고, 죽어야 했던 적대감을 유산처럼 물려받았다. 혐오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또 다른 전쟁터로 내몰릴 수 있다.

-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지은이_김태형

심리학자이자 심리 연구소 <함께> 소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주류 심리학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심리학계를 떠나 한동안 사회운동에 몰두하다가 중년의 나이가 되어 다시 심리학자의 길로 돌아왔다. 기존 심리학의 긍정적인 점을 계승하는 한편 오류와 한계를 과감히 비판하고 <올바른 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활발한 연구, 집필, 교육, 강의,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심리학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소개해 왔으며, 심리학을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문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주요 저술로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살공화국』 등이 있다.

5권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

탈북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그 아이들의 지도하는 현직 교사, 학부모들의 경험담을 엮었다. 현재 남한에 입국한 19세 미만의 탈북 청소년은 4,988명으로 전체 북한 이탈 주민 입국자 3만 3,022명(통일부, 2019년 6월 기준) 중 약 15퍼센트에 해당한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은 2,805명(교육부, 2018년 6월 기준) 정도로 추산된다. 이 책은 먼저 온 통일인 탈북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그들의 생생한 고민과 감정을 통해 보여 준다. 북녘에 계시는 엄마, 아빠에게 쓴 편지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정체성 혼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 가는 과정, 남한 친구의 배려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 통일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 등이 담겼다. 이 책을 엮은 정은찬 교수는 서문에서 자신의 탈북 경험을 밝히며 <탈북 청소년들을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고, 통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란다>고 출간 배경을 적고 있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추천의 말

여는 글

1장 탈북민으로 산다는 것

엄마, 아빠에게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그리웠던 엄마의 품으로

내 고향은 인천이었다

참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에게 가서

외국인보다도 낯선 존재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2장 어깨를 딱 펴고

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내 인생 최고의 선생님들

아빠가 사라졌다

어깨를 딱 펴고

자본주의 국가란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다

나의 한국 사회 적응기

한국과 북한의 모습들

3장 엄마도 가족이 있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빠! 우리 가족의 소원은 통일이죠?
엄마도 가족이 있었다
저에게 통일은
어느 날의 평범한 방송
우리 엄마의 고향, 개성
평범한 소녀 이야기

4장 통일, 그려 보기
살맛 납니다
울어도 괜찮아!
내가 가는 길
탈북 학생 지원 업무를 맡아 보면서
집으로 가는 행복한 길
통일, 그려 보기
내가 꿈꾸는 통일

추천의 말

통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처럼 남북의 청소년들이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며, 오해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글은 단순한 정착 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치게 될 통일 이야기입니다. - 현인애, 남북하나재단 이사

엮은이_정은찬

북한 원산경제대학교와 경북대학교를 거쳐 현재 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학교, 다음학교 등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들의 글을 모았다.

■문의 및 자료 요청

편집2팀 과장 김태권(T. 031-955-4025, M. 010-8864-0641, E. tack544@openbooks.co.kr)